

광고 적발시 접속차단·처벌강화... 불법사금융 강경대응

불법추심행위 등 법정근거 처벌 상습배포지역 중심 단속수사 강화 자체적출·외부제보로 불법광고 적발

#. 대학생 A씨(22)는 등록금 낼 돈이 부족하던 차에 상가에 붙어있던 '휴대폰 개통시 즉시 100만원 지급'이란 명함형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됐다.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 유심칩과 함께 가져오면 현금을 주겠다"는 상대측의 요구에 따라 실행한 A씨는 24개월간 월 8만원의 휴대폰 요금과 월 50만원 이상의 국제전화요금을 내야했고, 이후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돼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 주부 B씨(45)는 급전이 필요하던 중 "휴대폰소액결제 모바일상품권(20만원)을 구입해서 상품권코드를 보내주면 현금을 입금하겠다"는 카페 게시글을 보고 실행하게 됐다. 그러나 B씨는 연 24%의 법정최고 이자율에 달하는 초고금리 이자를 내고 현금 17만원만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한다.

SNS·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는 적발시 2주내로 앱·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 불법사금융 이자수취도 법정최고이자율인 연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 6%까지만 인정케 하고, 불법추심행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선 법정근거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불법사금융 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범정부 데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7조1000억원 수준으로 전년(6조8000억원) 대비 이



용금액이 증가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대상은 주로 60대 이상 노령층(41.1%), 가정주부(22.9%) 등 대부분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신고 건수는 5월 기준 일 평균 33건으로 지난 2019년(20건) 대비 약 60% 증가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SNS·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대부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차단한다.

금융감독원은 전담팀을 마련해 자체 적출과 외부제보를 통해 온·오프라인 불법광고를 적발한다. 적발된 온라인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앱·웹사이트 접속을 2주내로 차단하고, 오프라인광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3일 내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한다.

이달 말부터 연말까지 단속·처벌도 강화한다.

지능범죄수사대와 지자체의 대부업 특사경, 금감원 불법금융단속전담팀은 불법사금융 신고건과 분석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종 범죄 수법 및 불법추심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상습배포지역 중심으로 대부광고 전단지 등을 집중 수거해 미

스터리쇼핑(암행감찰) 등 단속 수사도 강화한다.

적발건은 관련 법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한다. 조직적 불법대부업 행위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악질적 불법채권추심행위는 폭력행위처벌법까지 적용한다. 불법 사금융 불법이득은 필요 시 적극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도 추진해 탈세이득을 박탈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도 구제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구제신청시스템'을 개선해 고금리·불법추심을 겪은 피해자의 1차 신고접수를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법률구조공단과 서민금융진흥원에 연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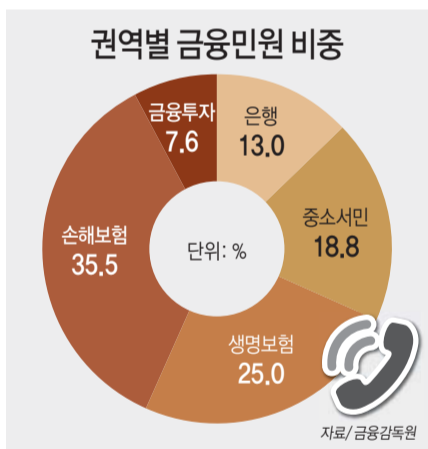
법률구조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피해자의 자금 수요 해소를 위해 종합 상담 후 대출공급, 채무조정, 복지·고용지원 등을 연계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1분기 금융민원 2.2만건... 업권불문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 은행 민원 2876건... 25% ↑ 여신 관련 민원 가장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권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따른 대출금 상환유예 등 금융애로부터 사모펀드 환매지연까지 업권을 불문하고 민원이 늘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2만212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다.

은행 민원건수는 287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여신과 방카·펀드 유형의 민원이 급증했다.

유형별 비중은 여신 관련 민원이

30.1%로 가장 높고 ▲예·적금(12.5%) ▲방카·펀드(11.4%) ▲인터넷·폰뱅킹(8.2%) 등의 순이다.

생명보험 민원건수는 553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을 주장하는 보험모

집 유형의 민원이 40% 넘게 급증했다.

손해보험 민원건수는 78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늘었다. 대부분의 유형에서 민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 및 면·부책 결정 유형이 급증했다.

금융투자 민원건수는 16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증권회사 비중이 69.6%로 가장 높았고 ▲투자자문회사 18.4% ▲부동산신탁회사 8.1% ▲자산운용회사 2.0% 등의 순이다.

증권사 민원건수는 1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6% 늘었다. 사모펀드 환매지연 등의 영향으로 펀드 및 신탁 유형의 민원이 급증했다. 1분기 민원 처리건수는 2만10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금융 '소액투자서비스' 상품 라인업 강화

적금 상품군 추가... 선택의 폭 넓혀

신한금융그룹은 23일 '소액투자서비스'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했다고 밝혔다.

소액투자서비스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내 펀드 상품을 보유해야만 가입이 가능했던 기존 서비스에 적금 상품군을 추가해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며 그룹의 자산관리 콘텐츠로서의 기능을 강화했다.

새롭게 추가된 적금상품은 기존에 신한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한 스마트 적금 ▲신한 첫 급여드림 적금 ▲신한 주거래드림 적금 등 총 6가지다. 원

금보장을 중요시하는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고객도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액투자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방식에 대한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형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도입했으며, 저축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기 위해 메인 화면에 '저축 달성률 게이지'를 배치했다.

또 고객의 실제 카드 사용 데이터를 반영해 가장 유리한 투자 방식과 금액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소액투자 목표설정' 기능도 신설해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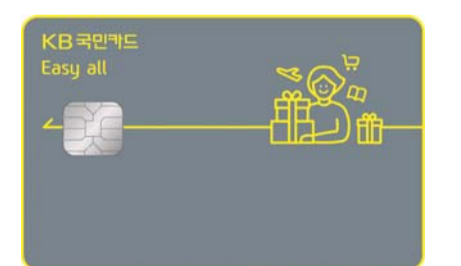
/안상미 기자

KB국민카드 고객이 할인 혜택·한도 직접 설계

KB국민카드가 고객이 원하는 할인 혜택과 할인 한도 구조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카드를 23일 출시했다. 'KB국민 이지올(Easy All) 티타늄 카드'와 'KB국민 이지올 카드(사진)' 총 2종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최대 20개 할인 영역과 최대 할인 한도를 고객의 카드 이용 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의 생활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할인 영역과 할인 폭을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한다.

또 혜택 설계가 번거로운 이용자를 위해 '자동할인 모드'를 제공한다. 자동할인 모드를 선택하면 고객의 카드 이용내역을 분석해 카드 이용이 많은 4~12개 영역을 자동으로 골라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2종 카드 서비스는 선택 그룹에 따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음식, 의료 업종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중교통, 편의점 ▲커피점, 패스트푸드 등으로 구성된 각 그룹을 선택하면 결제 시 3~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각 그룹별로 혜택을 적용하는 영역이 '이지올 티타늄 카드'의 경우 각 그룹별 5개씩 총 20개, '이지올 카드'는 각 그룹별 4개씩 총 16개다. /이영석 수습기자 ysl@

기부금으로 친환경 조성... KB국민銀, 맑은바다 금융상품

KB국민은행은 '고객과 함께하는 KB B 그린 웨이브(Green Wave) 캠페인'의 일환으로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KB맑은바다 금융상품 패키지'는 작년에 출시한 KB맑은바다 금융상품에 이은 친환경 특화상품이다. 가입을 통해 모인 기부금을 맑은바다 조성에 사용한다. 패키지는 'KB맑은바다적금'과 'KB맑은바다 공익신탁'으로 구성됐다.

지난 22일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열린 출시 기념행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KB맑은바다적금을 가입했고, 세계자연기금(WWF) 흥운

희 사무총장도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KB맑은바다적금은 1년제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이다. 매일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이율은 1년 기준 최고 연 1.75%(우대이율 포함)를 제공한다. 해양쓰레기 줄이기 활동에 동의하고, 종이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등 친환경 실천을 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특화상품이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이 가입한 적금 한 좌당 5000원씩 최대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하며, 기부금은 해양쓰레기 클린업 활동에 쓰여질 계획이다.

KB맑은바다 공익신탁은 고객이 신



(왼쪽부터) 흥운희 세계자연기금(WWF) 사무총장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지난 22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탁상품 가입 시 부담하는 보수의 10%의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안상미 기자